

다산포럼

### MZ세대와 지혜롭게 소통하는 법



김성수  
성균관대 글쓰기 교수

대학에서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친 지 35년째다. 무슨 과목이든, 키보드 검색만 잘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점수로 환산되는 지식이 아니라 그 '너머'를 가르치려 했다. 강남의 족집게 스타 강사처럼 출제자 의도를 재빨리 포착해서 채점자 눈에 들게 답안을 꾸며 내는 눈술 만점의 스킬은 길러 주지 못했다. 대신 검색과 암기로 터득되지 않는 학문적 진리와 학교 교육만으로는 얻기 힘든 삶의 지혜를 전하려고 잔소리꾼을 자처했다.

지금 학생들의 부모인 586세대부터 가르쳤던 '할배' 라서 젊은이들이 잔소리를 엄청 싫어하는 걸 잘 안다. 그래도 시간만 남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생각 쓰기'만 하지 말고 '살 쓰기'도 겸하려고 한다. 디지털 자판 세대가 아예 무시하는 문장부호와 띄어쓰기도 꼭 하라고 강조한다. 애정 어린 지적

과 야단치는 선생이 대학에 거의 없기에, '에브리타임' 사이트에서 '강비추' 육을 좀 먹더라도 잔소리를 계속 해 달라는 졸업생들의 거듭된 요청 때문이다.

요즘 보수 야당에 초유의 30대 대표가 등장하면서 정치부터 문화까지 세대 갈등을 은근히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도대체 MZ세대와 7080 세대의 갈등으로 누가 덕을 보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와 노장청 간 소통의 지혜를 경시하고 눈앞의 이익이나 이윤을 좇으라는 자본이란 이름의 물신인가도 싶다.

7080학번 세대로서 비록 끈대로 손가락질 받더라도 굳이 변명하자면, MZ세대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생했던 부모나 선배의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어렵게 학교를 마치고 식구와 주변 사람을 돌봐야 했던 이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산업 역군이나 민주화 운동 같은 공동체적 가치와 희생 및 헌신이었다.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싫은 일도 참고 견디면서 삶의 지혜를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 앞선 세대의 역할 아닐까? 그래서 비판적 문제의식을 지닌 깨어 있는 지식인에게 태평천하는 없다고 잔소리를 늘어놓곤 하였다.

글쓰기 선생으로 젊은 영혼들의 삶의 속내와 참신한 생각을 접하면서 한편으

로 세대 간 소통을 하고자 애썼다. 어떤 강의든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문제 제기, 토론식 대화와 영혼의 교감, 인간적 연대를 거론하였다. 가령 '보고서'는 억지 숙제나 예비 쓰레기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 사이의 또 다른 대화의 통로라고 설득하였다. '수강 노트' 또한 교수의 낡은 교안을 칠판과 피피티(ppt), 스마트폰과 '족보', 커닝페이퍼를 거쳐 답안지로 옮기는 배달 음식이 아니라 '자율 공부의 총체'로 재규정하였다.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바뀌었다. 간혹 별다른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학벌주의에 찌든 학생들은 물질의 힘이나 학교·학과 간판의 위력을 잘 알기에 잔소리나 지적을 견디지 못한다. 가르치는 자의 자긍심 한편에는 '올로'를 외치는 MZ세대에게 가부장적 폐쇄의 상징으로 비칠까 자괴감도 없지 않다. 그래서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식의 끈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노장청 소통의 새로운 지혜를 얻기 위해 틈나는 대로 청년 학생들의 문화적 트렌드를 알아본다.

가령 아이돌 뮤직비디오와 웹툰, 컴퓨터게임과 스포츠 중계,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챙겨 본다. 그동안 접한 청년 문

화로는 '드래곤 볼' '신과 함께' '신의 탑' 같은 만화, 웹툰부터 지브리 프로덕션의 저패니메이션, 스타크래프트, 배그, 롤 등의 게임, 그리고 서태지, BTS, 있지(ITZY) 등의 아이돌 뮤직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선생이 예습하여 교과 내용의 적절한 비유를 현재진행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느냐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런 식의 일상적 소통과 신뢰를 쌓은 후,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다는 세대에 굴복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호연지기를 길러 준다. 자기가 정말하고 싶고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당장은 돈도 안 되고 이름도 높일 수 없을지언정 후회 없이 버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부추긴다. 요리사를 꿈꾸는 법학도, 소설을 쓰는 약대생, 인디 밴드를 이끄는 경영학도, 단편영화를 찍는 영문학도 선배를 예로 든다.

단, 그때까지 힘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생길 텐데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며 그걸 꿈꾸는 것이 젊음의 특권인 것을. 그가 이 글을 읽길 기대한다.

청춘 특특

### 말의 무게를 생각하는 날들



최윤진  
조대신문 편집국장

는 없었다. 나보다 사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인터뷰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지위, 생각 등을 포함한 기사가 작성돼야 마땅했다. 읽고 궁금증이 남아선 안됐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는 비단 학보사 인터뷰 활동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이 맞다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 간 관계 맺기란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대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더구나 상하 관계의 위계질서가 확실한 우리나라에서의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말에 그치지 쉽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나를 폄하하고 폄하하는 말에 반박하기 보다는 애써 수긍을 하고, 회피하거나 만경 부리며 나를 지켜야 하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바로 저번 주 기사 작성을 마치고 왔던 택시 기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다. "이 시간대, 새벽에는 보통 주주자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렇지. '주주자'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런 손님들이 더러 있어. 술 마시고 마스크를 안 챙겼나 봐. 마스크를 써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손님은 자기가 술 먹느라 깜빡했다며 미안해 해. 그런데 어떤 손님은 도리어 막 화를 내. 마스크 안 쓴 손님 안 받는다고 내리라고 하면 그제야 미안해 하는데... 기분은 이미 안 좋지." 가볍게 시작한 대화의 끝에는 씩씩함

만 남아 있었다.

그에 반해 다른 누군가와 대화로 비슷한 시기 큰 위안을 얻은 친구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바깥 활동, 성과를 내야 하는 대내외 활동,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 등 친구는 앞선 데 났진 격으로 코로나 우울과 관련해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친구에게 물어보니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목소리로 다독여 주 심적으로 엄청 편안하고 좋았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말이란 건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고, 그때의 기분 따라 흥, 또 다른 날에는 찢, 그런 것 이니까 그저 고고하게 말없이 지낼 걸 그랬다 뒤늦은 후회도 합니다." 최근 인상 깊게 읽었던 소설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2020)에서 발췌한 구절이다. 과거 한 순간의 느낌과 기분에 따라 누군가를 향해 톡 그리고 무심히 뱉고 만 말들에 대해 한참을 곱씹게 만드는 글이었다.

택시 기사님,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남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내게 위로와 위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저런 경험들로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는 요즘이다. 아주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무게의 말을 앞으로 계속 찾아 나가고 싶다.

기고

### 일상화되는 애그플레이션



기영운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없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왔다. 봉쇄 정책으로 공급 얼어붙은 경제에 긴급 수혈은 피할 수 없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경제활동이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자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 원유, 철강, 그리고 농산물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다. 어지간한 품목 앞에 '금'자가 붙지 않은 것이 없다. 금계란, 금호박, 금대파. 그런데 농산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국내만의,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고 볼 수 있는 통계들이 발표되면서 가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세계 식량 가격 추이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식량 가격 지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4개 주요 식량 품목의 국제 가격 동향을 토대로 발표하는 지수다. 최근 발표한 지난 4월 기준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0.9포인트로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포인트로 삼아 산정하므로 기준 가격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세계 식량 가격이 1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공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식량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국가다. 식량 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2009년 56.2%를 기록했지만 2019년 45.8%로 최근 10년 사이 무려 10% 넘게 하락했다. 그나마 이 수치에는 사료용 곡물이 빠져있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하는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해 2019년 기준 29.6%에 그쳤다. 심각하게 낮은 자급률

조차 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은 10%를 넘지 못하고, 곡물 자급률은 고작 3% 대에 그친다. 사정이 이러하니 라면부터 축산물 가격까지 오르지 않을 재간이 없다.

앞선 데 났진 격으로 이상기후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을 구조화하고 있다. 영암의 무화과는 열 그루 중 여덟 그루 넘게 얼어 버렸고, 사과며 배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 과수들이 지천이다. 발작물이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품목을 넘나들며 이상고온과 이상저온의 사이에서 말라가고 있다.

안정적인 농산물의 공급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제 농산물 공급망이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았다. 부족한 식량을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지 드러나고 있다.

지금의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제껏 인간의 이기심을 목독히 감내해 오던 생태계의 반격이다.

올해도 폭우와 가뭄,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과수화상병 등은 반복될 것이다. 예외적인 현상이라도 빈도가 잦아지면 아주 일상적인,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 구조적 문제는 대중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물독에 눈물이 맺히면 비가 온다. 농민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국민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과 답답한 토전을 시작해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조금 빠르게.

社說

### 시민 안전 위협 건설현장 아직도 이리 많다니

건축물 부실 해체와 붕괴 위험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건설 현장이 광주 지역에만 20여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는 학동 참사 이후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까지 예정으로 5개 지구구 및 산하 지역에만 20여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는 학동 참사 이후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까지 예정으로 5개 지구구 및 산하 지역에만 20여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는 학동 참사 이후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까지 예정으로 5개 지구구 및 산하 지역에만 20여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이다.

많은 건물이 여섯 동 남아 있으며, 운암 3단지는 해체계획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체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 남구 수박동 주택건설 현장은 철거 공사 후 깎아낸 흙의 비탈면 안전 조치를 미흡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계림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두 명 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후 광주시가 이렇다 할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 행정'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광주시는 적발된 대규모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이 확실하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붕괴 우려가 있는 공사장 등은 즉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점검하게 될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하게 확인한 뒤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사고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 민주당 '경선 연기론' 갈등 조속히 정리해야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와 관련 오늘 의원총회를 연다. 이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이재명계 의원 66명이 경선 일정 논의를 위한 의총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선 경선 일정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의 당 대표로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의총은 당내 찬반 의견을 듣는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대선(2022년 3월 9일) 180일 전인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의원들과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 및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계파 갈등은 의총 이후에도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 지도부가 의총에서 토론을 진행한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여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선 일정을 원칙대로 가지는 쪽이나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연기하자는 쪽이나 모두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오래 갈 경우 국민들께겐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우물리만 놓고 다툰다는 인상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젊은 대표 바람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여 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놓고 계속 분열할 경우 국민은 더욱 실망할 뿐이다. 따라서 당은 경선 연기론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민주당 위기관'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대 이준석 대표 체제를 만들어 내면서 변화와 혁신을 선명한 상황이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 머지않아 보이고

결국 해결책은 당사자들의 통 큰 합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소모적 대리전이 계속되면 민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시

간은 있다. 송영길 대표

는 직을 걸고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각 주자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과감한 결단인 나서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집권 과정을 보면 참으로 극적인 상황의 연속이었다. 진보 진영의 정치적 지형은 그만큼 불리하고 쉽지 않다. 민주당이 경선에서 국민적 공감을 담은 큰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면 보선 정장은 암울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위기관을 잠재우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들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민주당 위기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